



고요한 동굴 속 사원

동굴 안에 자리한 불교 사원을 찍은 사진들. 신성함에 잠시 말을 멈춘다. 동굴 사이로 비친 빛은 참배객들의 지친 마음 속까지 내려앉는다. 하늘까지 닿으려다 만 공허한 높이를 그 빛이 적막하게 채워준다. 사진은 미얀마 닷도타웅 동굴(Datdawtaung Cave)(사진 왼쪽), 태국 카오 루앙 동굴(Khao Luang Cave)(사진 오른쪽) 배현진 기자

부처님 말씀, 대중의 코드에 맞춘다

일본, 불교만담 스토리텔링 포교 호응

일본 불교계에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기법을 접목한 '포교 프로그램'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Japan Times>지는 지난 10일 "불교스토리텔러 교쿠도 난카이(Kyokudo Nankai), 교코 오카자와(Kyoko Okazawa) 등을 필두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접목한 불교 교실이 대중들 사이에 호응을 얻고 있다"며 "특히 불교스토리텔러 대부분 일반 불자라는 점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스토리텔링이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불교스토리텔링 역시 이야기로 청중과 소통한다는 형식에서 일반적인 스토리텔링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소재로 경전, 명화, 설화 등을 선택한다는 점이 비교된다. 여기에 불교의 가르침을 강조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Japan Times>지에 따르면, 불교스토리텔러의 선두주자인 교쿠도 난카이(Kyokudo Nankai)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사카에 있는 미나미(Minami) 상업 지구에서 불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 불교교실'을 열고, 진언종(Shingon school of Buddhism)의 창시자인 '교보 대사'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신심을 다졌다.

<Japan Times>지는 "교보 대사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청중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교쿠도 난카이 씨는 청중들의 웃음과 웃음 사이에 교보 대사의 실천이 돋보였던 '중생구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스토리텔링 불교교실"의 강의 분위기를 전했다.

"여러 종단 스님의 설법을 경청할 때마다 '현대인들이 다가서기에는 무언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는 교쿠도 난카이 씨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강설'도 이제는 '대중 문화'의 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또한 "만담 같은 강설이 자칫 정통 불교계의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중에게는 더욱 다가설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교쿠도 난카이 씨는 "불교스토리텔링은 '예술적 강설'이라며 "이는 불교와 대중의 벽을 낮추는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코 오카자와(Kyoko Okazawa)도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불교스토리텔러'이다. <Japan Times>지는 "나카노 시에 있는 하세(Hase) 사원(진언종) 주지 스님의 부인이기도 한 교코 오카자와 씨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Nehan)'을 주제로 한 '그림 우화'로 대중의 불심을 사로잡고 있다"며 "그녀의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대중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한다"고 보도했다.



불교스토리텔러 교쿠도 난카이(Kyokudo Nankai) 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사카의 한 사찰에서 '스토리텔링 불교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Japan Times>지에 따르면,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으며 '헤이안 시대(794-1185)의 여성과 불교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던 교코 오카자와 씨는 하세(Hase) 사원의 수장고를 정리하던 중에도 시대1603-1863)의 그림으로 추정되는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을 주제의 그림을 발견했다. 이후 이 그림은 그녀가 '죽음'을 주제로 한 '불교스토리텔러'로 나서게 된 단초가 되었다.

"인생은 거칠고 험난한 여정이요, 그 귀결은 바로 '죽음'이라고 전해온 교코 오카자와 씨는 "문제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

만 하고, 또 그 결과, 즉 죽음을 여려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질 수장고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이 그림이 그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Japan Times>지는 "교쿠도 난카이, 교코 오카자와 등 '불교스토리텔러'들의 이야기는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다"며 "그들에게 사원과 불교 단체에 서편만 아니라 어린이·노인·복지·기독교 등 불교와 사문 다른 단체에서의 강연 섭외도 들어올 정도"라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놀이공원식 테마파크 인기, 불상도 봉안

불교 모티프 삼은 베트남 스이티엔 공원

불교를 오락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스이티엔(Suoi Tien) 놀이공원은 불교식 테마파크다. 베트남 전통문화를 오락시설에 접목해 신화와 불교 이야기가 살아있는 놀이동산을 만들었다. 불교식 이야기를 입힌 놀이 도깨비 집(Ky Lan)이 대표적 장소. 사후 지옥을 형상화한 곳으로 지옥의 사신이 지나가는 관광객을 노려보는가 하면, 불교의 18곳 지옥에서 고통을 받

고 있는 장면을 연출해 섬뜩함을 준다. 놀이동산 곳곳에 불교에서 모티프를 얻은 조형물을 만들었고 심지어 불상도 봉안했다. 1995년 만들어진 이 공원은 개장 이후로 베트남이 대표적 관광지로서 자리잡았다. 둘러보는 데만 2시간이 걸릴 정도로 큰 규모는 박쥐 동굴, 지하터널 수족관, 악어 먹이 체험 등 풍부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유럽의 고성 등 서양식 테마파크와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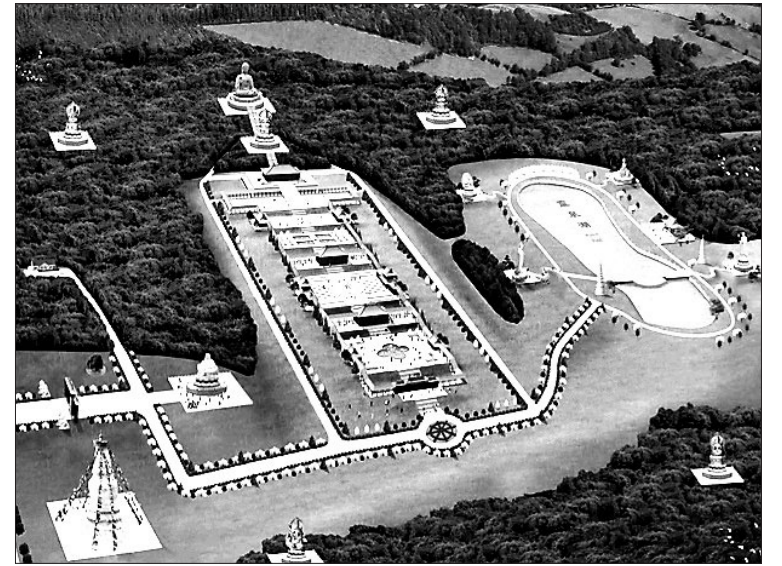
베트남 스이티엔 놀이공원에는 사천왕상, 코끼리 상등 불교식 조형물이 가득하다.

는 것도 매력적이다. 베트남 고유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이유다. 이곳은 세계 각지의 관광 정보를 랭킹으로 정하여 소개하는 '트래블러 존'이라는 웹 사

이트(www.thetravelerszone.com)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마파크 12선'에 선정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 '진퇴양난'

수행 환경 보호나 친환경 발전시설 건설이나



참 산(Cham Shan) 사원이 온타리오 오크 리지스 모레인(Oak Ridges Moraine)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지순례 프로젝트'의 조감도. 이에 따르면 새롭게 개원될 네 개의 불교 센터가 산책로로 연결되고, 불자들과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걸으며 네 개의 불교 센터를 방문하는 일명 '성지 순례' 길이 조성된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대만 불교계와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졌다.

(National Post)지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온타리오 오크 리지스 모레인(Oak Ridges Moraine) 지역에서 '수행 환경'을 보호하려는 참 산(Cham Shan) 사원과 '저가 친환경 발전시설'을 세우려는 지역 주민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며 "이는 주정부가 3년 전 참 산 사원의 '충족 프로젝트'를 승인한 데 이어 최근 인접 지역에 '풍력발전소 신상'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참 산 사원은 3년 전 오크 리지스 모레인 지역에 네 개의 불교 센터를 세우, 이들을 연결한 산책로를 따라 걷는 일명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온타리오 주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한 개의 불교 센터를 완공해 4분의 1 가량 진행됐다. 완공된 불교 센터에는 네 명의 스님이 상주하고 있다.

한편 온타리오 주정부가 지난해 12월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오크 리지스 모레인 지역에서 '풍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는 '2030년까지 온타리오 주 연간 소비전력 10%를 풍력으로 대체한다'는 주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불교 센터와 풍력발전소 건설 현장이 가깝다는 데 있다. 여기에 참 산 사원 측의 주장도, 지역 주민 측의 주장도 모두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참 산 사원 측은 "주정부의 승인

을 받은 프로젝트인 만큼 '수행 환경' 등 프로젝트 제반 조건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 주민 측은 "관광산업과 상업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상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가 절실하며, 따라서 최적의 입지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주정부가 '믿을 수 없는 결정'을 했다"고 주 정부를 비판

- 불교센터 인근에 들어설 풍력 발전소 두고 불교계와 지역계 행정 소송중 불교계 3년전 이미 건축허가 된 것 지역계 최적 조건 갖춘 곳

한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의원(온타리오 주)은 "참 산 사원은 '성지순례 프로젝트'를 위해 이미 40만 달러를 지불했다"며 "오크 리지스 모레인 지역에서 풍력발전소의 필요성을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주정부는 발전소 부지 선정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National Post> 지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참 산 사원 측과 지역 주민 대표 측과의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 주정부가 어떤 쪽의 의견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를 놓고 온타리오 각 계각층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Includes a logo, a list of requirements for membership (1) 입종 구비서류 and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and contact information for WBOA (세계불교종단연합회).